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정오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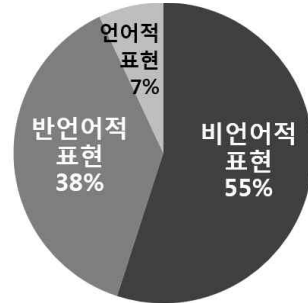
**[문항 1]**

[그림 1]을 토대로 제시문 (가)에서 할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소 목덜미에 손을 얹었는지 해석하고, 이와 같은 할머니의 행동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를 논의하시오. 한편, [그림 2]의 (A)와 (B)에서 여학생은 동일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남학생의 반응은 다르다. [그림 2]의 (A)와 (B)에서 여학생이 취한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세 가지 찾아내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각각 비교분석해 논하시오.

**제시문 (가) 묵화(墨畫)**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림 1]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 방법의 비중



**제시문 (나)**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작용 활동이다.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대화하려면 대화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등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화자에 대한 청자의 요구나 기대, 화자와 청자의 친밀한 정도, 배경지식의 수준 등 대화 참여자에 대해 분석하고 대화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제시문 (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대화를 나눌 때 공감을 하면 대화 상황이 쉽게 파악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감정이입을 하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감적 대화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하기와 듣기를 말한다. 이러한 표현하기와 듣기를 잘 수행하는 경우, 듣는 이는 상대방에게 ‘나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감적 대화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대화로 해소하고자 할 때나 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림 2] 두 학생의 대화



**[문항 2]**

제시문 (가)는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가 발표한 인권선언문의 일부이다. 1850년대 이전 영국인들은 제시문 (가)의 인권선언 중에서 어느 조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어느 조항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는지 제시문 (나)와 (다)를 토대로 설명하시오. 또한 제시문 (다)의 내용을 고려해서 제시문 (가)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인간의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 제시하시오.

**제시문 (가)**

제1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몸이 자유로울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안전을 누릴 권리, 압제에 저항할 권리이다.

제6조. 법률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10조. 누구도 그의 의견 표현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 의견 때문에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세금은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제시문 (나)**

영국은 의회 정치의 전통 위에 입법을 통해 자유주의적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자유주의적 입법은 상공 시민층에 지지 기반을 둔 휘그당 세력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1828년에는 심사법이 폐지되고 1829년에 가톨릭교도 해방법이 제정됨으로써 비국교도들에게도 관직이 개방되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1832년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고 도시의 신흥 상공 시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선거법 개정 이후 성립된 의회에서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개편되어 양당 정치의 틀이 확립되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인민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보통 선거와 노동자의 피선거권 등 노동자의 참정권을 요구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후 선거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져 선거권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 계층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표 1〉 참고).

**〈표 1〉 영국의 선거법 개정**

구분	확대된 유권자	전 국민 중 유권자 비율
개정 전	귀족, 젠티리(지주)	3%
제1차(1832년)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	4.5%
제2차(1867년)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	9%
제3차(1884년)	농촌, 광산의 노동자	19%
제4차(1918년)	21세 이상의 남성, 30세 이상의 여성	46%
제5차(1928년)	21세 이상의 남·여	62%

**제시문 (다)**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다. 그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부녀자와 아동까지 값싼 임금을 주고 고용하였다(〈표 2〉 참고). 또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한편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넘쳐났는데, 도시는 아직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빈민가는 음식 공급과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영양실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인구 밀집으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다. 물은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로, 공기는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로 오염되었으며, 쥐와 벌레들은 전염병을 빠르게 퍼뜨렸다.

노동자들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영국 의회는 1871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표 2〉 영국 산업별 아동고용 상황(1833~1834년)**

산업	최소 고용연령	일일 평균 노동시간
면직	8세	13시간
모직	6세	12~13시간
탄광	4세	8~18시간